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웬 푸 쩡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1일 오후 주석부에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웬 푸 쩡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주석부 광장에 도착하시자 웬 푸 쩡 주석이 따듯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웬 푸 쩡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는 공식영접의식이 주석부 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주석부 광장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월남사회주의공화국 국기가 세워져있었고 월남인민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또한 두 나라 국기를 든 어린이들이 출지어 서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웬 푸 쩡 주석과 함께 어린이환영대렬앞에 이르시자 귀여운 어린이가 꽃다발을 드리고 어린이들이 두 나라 국기를 높이 흔들며 열렬히 환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드시며 따듯이 답례하시고 웬 푸 쩡 주석과 함께 사열대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웬 푸 쩡 주석이 사열대에 오르시자 우리 나라 애국가와 월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월남인민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웬 푸 쩡 주석의 안내를 받으시며 월남인민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

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웬 푸 쩡 주석께서는 각기 두 나라 당과 정부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이어 월남인민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의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노광철인민무력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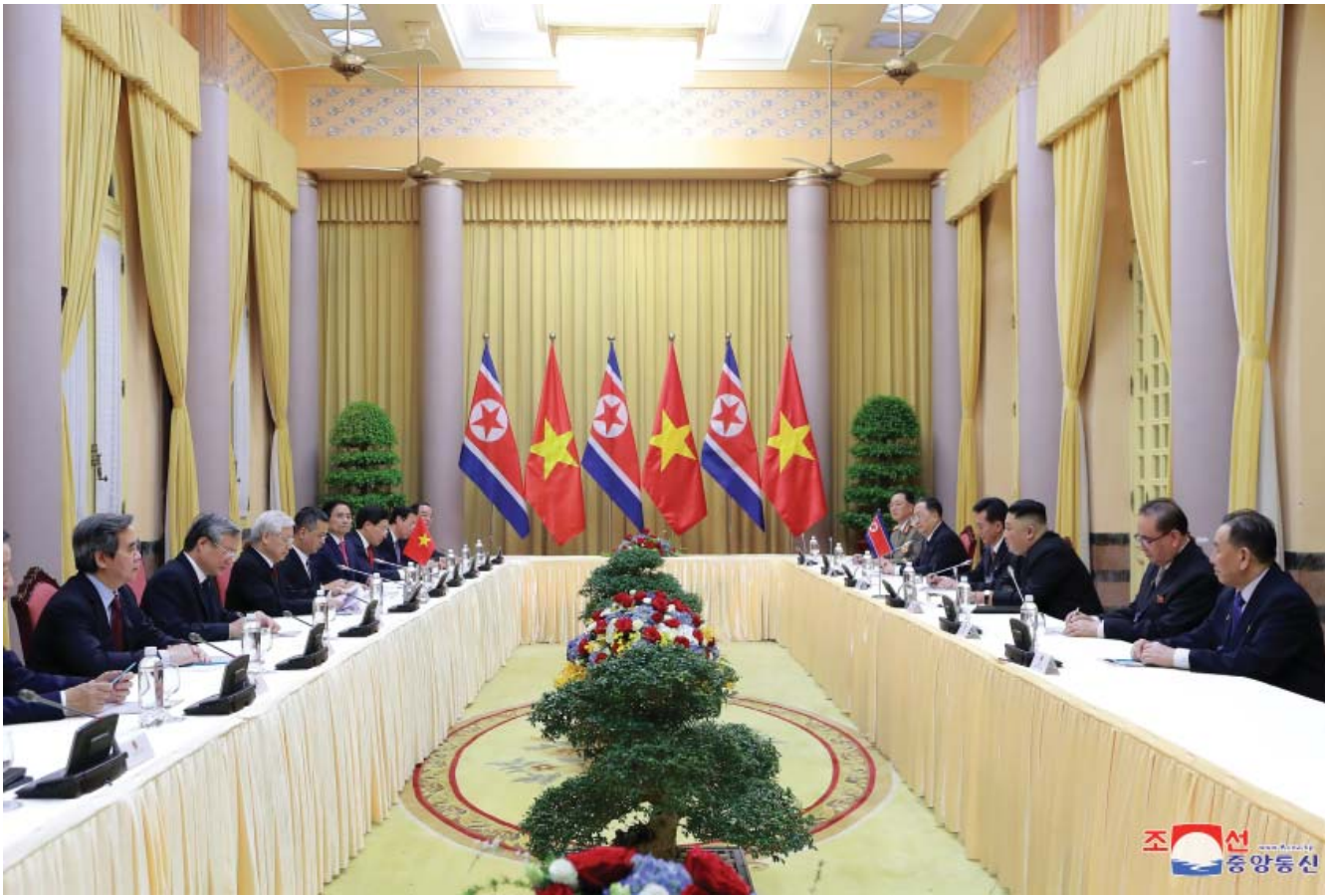
상대측에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켄 꾸억 브영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팜 밍 쩡조직부장,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웬 반 빙경제부장,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부부수상인 팜 빙 밍의무상,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공안상인 또 럽대장,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웬 반 넨 당중앙위원회 판공실

주임, 황 빙 꾸언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장, 다오 비엠흥 국가주석판공실 주임, 레 호 아이 쩡 외무성 부상, 웬 득 쩡 하노이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레 바 빙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투명전력대사를 비롯한 월남당과 정부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웬 푸 쩡 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과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웬 푸 쩡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사이의 회담이 3월 1일 주석부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철,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의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노광철인민무력상이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는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쩌 꾸억 브영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팜 밍 쩡조직부장,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웬 반 빙경제부장,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부부수상인 팜 빙 밍의무상,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공안상인 또 림대장,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웬 반 넨 당중앙위원회 판공실 주임, 황 빙 꾸언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장, 다오 비엣 쩡 국가주석관공실 주임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현황들이 호상 통보되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웬 푸 쩡총비서동지와 상봉하고 월남동지들과 면목을 익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이 극진히 맞아주고 열렬히 환대해주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적, 정부적태양을 활발히 벌리며 경제, 과학기술, 국방, 체육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인민이 웬 푸 쩡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월남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부유한 인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공평하고 문명한 국가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당과 정부가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를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웬 푸 쩡주석은 월남당과 국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월남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은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서 리정표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웬 푸 쩡주석은 월남과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가꾸어주신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이며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은 월남의 독립과 민족해방투쟁에 조선이 커다란 지지성원을 준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증시하며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월남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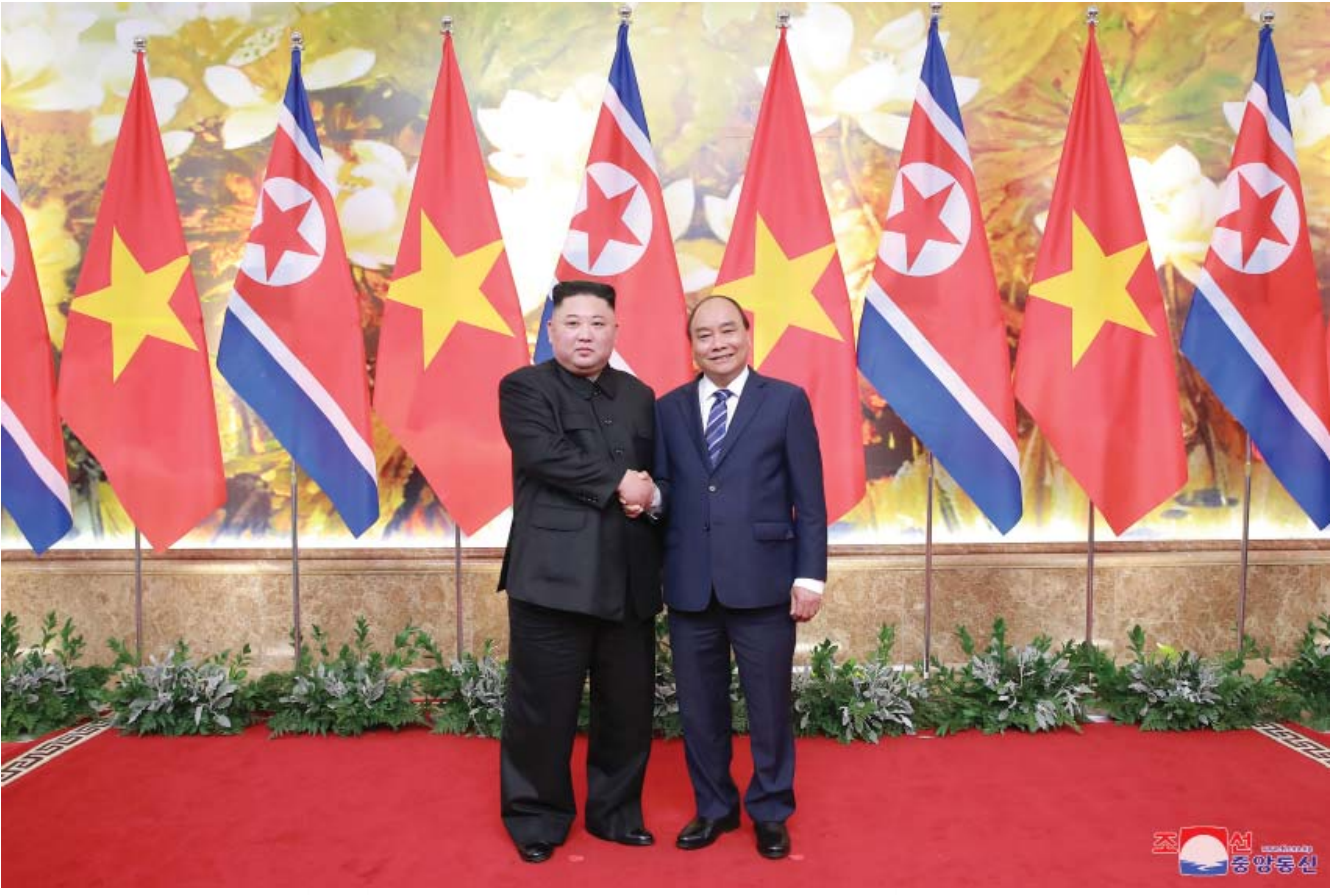
웬 푸 쩡주석은 조선인민이 김정은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웬 푸 쩡주석은 제2차 조미수뇌상봉장소로 하노이를 선택한것은 두 나라사이의 신뢰를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회담에서 발현된 조선과 미국의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립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며 허심탄회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웬 수언 푹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수상과 상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1일 오후 웬 수언 푹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수상과 상봉하시였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청사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웬 수언 푹정부수상과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쩌영 화 빙 정부수상인부수상,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브영 텡 후에정부부수상,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상인 응오 쑤언 립대장, 다오 비엣 쩡 국가주석관공실 주임, 마이 띠엔 중 정부판공실 주임, 쩌 푸영 아이공 공업 및 상업상, 웬 쑤언 끄영 농업 및 농촌개발상, 레 호아이 쩡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월남정부간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웬 수언 푹정부수상과

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귀여운 어린이가 꽃다발을 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웬 수언 푹정부수상은 홀에 전시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보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방문을 환영하여 녀성들이 두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웬 수언 푹정부수상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철,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의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노광철인민무력상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웬 리 킴 응언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의장과 상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1일 오후 웬 리 킴 응언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의장과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청사를 방문하시어 웬 리 킴 응언의장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푹 리 푹 인민회의 상임부의장, 우용 쑤류 인민회의 부의장, 다오 비엣 쩡 국가주석관공실 주임, 웬 마이영 저우 인민회의 대외위원회 위원장, 인민회의 총서기인 웬 하영 푹 판공실 주임, 레 호아이 쩡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월남정부간부들이 맞이하였다.

또한 두 나라 국기를 손에 든 녀성들이 줄지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녀성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웬 리 킴 응언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철,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의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노광철인민무력상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웬 리 킴 응언의장께서는 담화에 참가한 두 나라 당과 정부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웬 푸 쩡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3월 1일 국제회의센터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웬 푸 쩡주석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었다.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피로써 맺어진 형제적친선관계를 빛나게 계승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과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회시작에 앞서 두 나라 국가가 주악되었다.

연회에서는 웬 푸 쩡주석이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었다.

웬 푸 쩡주석은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월남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은 김일성주석의 1964년 월남방문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방문

으로서 월남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증시하는 조 선당과 정부의 립장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웬 푸 쩡주석은 호志明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품들어 가져오신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어왔다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년을 앞두고 진행된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웬 푸 쩡주석은 월남과 조선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가까이에 있고 친형제와 같다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웬 푸 쩡동지가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는 분명한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 성의를 다해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면서 격변하는 세계정 치정세하에서 조선월남친선의 력사적전통을 변함없

이 이어나가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 일념을 안고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심혼이 어려어있고 조선월남친선의 력사를 피로써 새긴 두 나라 렬사들의 공동의 념이 깃든 월남을 찾 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하시면서 조선월남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손잡고나 아갈 의지를 확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에 대한 첫 방문과 총비서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와 호志明동지에 의하여 맺어지고 다져진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생활력과 훌륭한 미래를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조선월남 친선을 굳건히 지키고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어나 갈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연회는 조선월남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즐겁고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월남방문을 환영하여 월남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다채로운 예술공연이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월남의 국가배우들이 출연한 남성독창 《충성의 노래》, 녀성독창 《매혹》을 비롯한 종목들과 월남의 전통적이고 우아한 기악, 무용종목들이 올라 환영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웬 푸 쩡주석과 함께 무대에 나가시여 성의있고 특색있는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당과 정부의 진정어린 따뜻한 환대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시하고 웬 푸 쩡주석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호志明주석의 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일 오전 호志明주석의 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노광철인민무력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수행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

였다.

다오 비엡 쩡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부 판공실 주임과 레 바 빙 우리 나라 주재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화환의 땀에는 《호志明주석을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호志明주석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일 오전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노광철인민무력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수행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다오 비엡 쩡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부 판공실 주임과 레 바 빙 우리 나라 주재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었다.

화환의 땀에는 《영웅렬사들을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출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3월 2일 하노이시를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숙소에서 웬득 웬득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황공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상임부주임, 월남공안성 부상인 부이 반남상장이 배웅해드리였다.

조선과 월남사이의 친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세계평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웬득 웬득 하노이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숙소에서 찾아온 월남당과 정부, 하노이시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숙소를 출발하시였다.

이날 하노이시민들은 조선과 월남친선의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고 귀국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뜨겁게 환송하였다.

숙소로부터 전용렬차출발역인 동당역에 이르는 수백리 긴 연도에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흔들며 뜨거운 마음으로 배례드리였다.

동당역앞과 역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환송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아름다운 민족옷차림을 하고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손에 들고 늘어 서있었다.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보 반 트영선전교육부장, 마이 락엔 중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판공실 주임, 레 호아 이 쉐 외무성 부상, 팜 티 호영 타이 월남공산당 랑쎌주위원회 비서, 레 바 빙 우리 나라 주재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월남당 및 정부간부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또한 김평길 월남사회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도에 펼쳐나온 수많은 하노이시민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면서 역에 도착하자 군악대의 환영곡이 울리고 역앞에서 기다리던 환송군중들이 친선의 정을 안고 기발과 꽃다발을 흔들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월남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용차에서 내리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오래동안 손을 저어 주시며 따듯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녀성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면서 환송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남의 당 및 정부간부들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문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친절하고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신 전용렬차는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월남인민의 굳은 친선단결의 정을 실고 동당역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은 웬득 웬득 주석과 월남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속에서 공고화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힘있게 과시하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 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3월 5일 전용렬차로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리용호외무장, 노광철인민무력장, 김여정, 리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박정남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장, 국장들이 함께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월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역구내에 달려나온 군중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는 마음안고 원수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릴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새벽 3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신 전용렬차가 평양역구내에 서서

히 들어서자 원수님을 자나깨나 꿈결에도 그리며 몸서리쳐 돌아오실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들의 열광같은 흥분의 정과 세찬 격정의 분출인양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평양하늘가를 가득 채우며 메아리 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렬차에서 내리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영접하는 의식이 평양역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남녀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은 우

리 조국의 무궁번영과 우리 인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하여 2만여명의 머나먼 로정을 오가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고 조국에 무사히 돌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중나온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시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환영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역사에 길이 전할 애국헌신의 대장정

출중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과 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얼마전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월남의 하노이에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고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월남방문은 격변하는 세계정치정세하에서 조선월남친선의 역사적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시려는 숭고한 일념의 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문 첫날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심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자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적, 정부적레앙을 활발히 벌리며 경제, 과학기술, 국방, 체육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아가 한다고 하시었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은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은 월남의 독립과 민족해방투쟁에 조선이 커다란 지지성원을 준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증시하며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아가려는것은 월남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서도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심혼이 어리어있고 조선월남친선의 역사를 피로써 새긴 두 나라 렬사들의 공동의 념이 깃든 월남을 찾는것은 너무도 웅대한

것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하시면서 조선월남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손잡고나아갈 의지를 확인하시었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은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풀들여 가꾸어 오신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어왔다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0돐을 앞두고 진행중인 월남과 조선사이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월남방문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당과 정부, 인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월남당과 정부,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극진한 환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절세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분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속에서 공고화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힘있게 과시하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서 2만여리의 마나면 로정을 오가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계의 평화와 친선의 년대기구에 빛나게 아로 새겨지게 될것이다.

그리움의 열흘

오셨다 우리 원수님
조국을 떠나 인민을 떠나
열흘날 열흘밤
2만여리 외국방문의 대장정에서
원수님 몸성히 돌아오시었다

원수님께 드린 인민의 경의어!
우리를수록 목이 짝 메어오는
그처럼 뵈고싶던 인민의 아버지
조국의 번영 인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과 로고 다 바치시는 원수님

열흘!
력사의 순간과도 같은 짧은 나날
하나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에
천날, 만날로 흐른 날과 날이었다

자로운 아버기를 모시고 사는 행운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끝없는 행복
얼마나 가슴에 차넘치는가
진정 그이를 떠나 순간도 살수 없어야
원수님 없으면 우리 정녕 못 살아

가시는 그 길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서던 마음들
몸성히 돌아오시라 기다리던 인민들
기다림에 기다림에 맞이한 그이께
삼가 드리는 축하의 인사어!

그리움의 열흘날 열흘밤
어찌 력사의 한순간처럼 짧다고 하랴
일심단결로 무궁명영할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안고있는 열흘
그이와 운명의 괴출 있고 사는 이 나라 인민
원수님 받들어 끝이 없을
오, 충정의 천만날이다!

그이 오시면 보여드리자
그이 오시면 기쁨드리자
충정의 낮과 밤이 흐른 열흘날 열흘밤
그 하루하루에 불타던 그리움을 한껏 터쳐

그이를 모시고 그이를 받들어
세월이 다하도록
충정의 천만리를 걸고걸으리라
하늘땅 끝이라도 따르고 따르리라
불같은 이 진정한 인민은 경건히 드리노라

축하의 인사 드립니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원수님
환하신 미소로 렬차에서 내리실 때
인민의 가슴에 뚫어오른것은
격정의 파도인가 환희의 눈물인가

아, 조국에 그이 돌아오신 오늘에도
인민의 눈가늘 감격의 눈물
마음속에 품고 계신 인민들
상봉의 시각이 너무도 기쁘시어
원수님은 웃으시며 손을 저어주시고
기다려 기다리던 아버지을 맞이해
인민은 쌓아온 그리움 한껏 터쳐노라

조국의 무궁명영
겨레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2만여리 멀고먼 길 다녀오신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에게
따뜻한 귀국인사 보내셨으니
정녕 고마움의 인사는 누가 드려야 하는가

인사를 받으시라!
다함없는 축하를 받으시라!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애국헌신의 대장정 다녀오신 원수님
이 세상 환골이라도 가실 우리 원수님

그이 대장정에 오르신 그날부터
밤을 잊고 산 인민
원수님 기뻐하시게
보답의 날과 날로 이어온 인민

그이를 모시고 그이를 받들어
세월이 다하도록
충정의 천만리를 걸고걸으리라
하늘땅 끝이라도 따르고 따르리라
불같은 이 진정한 인민은 경건히 드리노라

정력적인 대외활동 펼쳐가시는
원수님 가까이 있었나니
떠나신 그날에도 뜨거운 눈물

아, 조국에 그이 돌아오신 오늘에도
인민의 눈가늘 감격의 눈물
마음속에 품고 계신 인민들
상봉의 시각이 너무도 기쁘시어
원수님은 웃으시며 손을 저어주시고
기다려 기다리던 아버지을 맞이해
인민은 쌓아온 그리움 한껏 터쳐노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에 돌아오시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환호를 울리는 근로자들

한 교육자에게 하신 투표

주제 45(1956)년 11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방주권 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기 위하여 선거장소로 꾸러진 당시 평양제1유치원을 찾으시었다. 선거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유치원을 어데서 꾸러

주었는가고 물으시었다. 한 일군이 대의원후보자인 유치원 원장과 교양원들, 학부형들의 힘으로 꾸렸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대의원후보자인 유치원 원장에게 투표

하시고 그의 사진앞에 서시더니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선거를 할수도 있고 선거를 받을수도 있는 좋은 사회제이며 인민의 대의원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일을 더 잘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군사교육기관을 찾으시어

주제 92(2003)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기 위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나오시었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고 선

거장으로 향하신 그이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조선인민군 군관에게 투표하시시고나서 그를 만나 뜻깊은 대화를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대

학이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 골간양성기지, 군사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발전해온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혁명무력강화 발전에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위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인민의 대표된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주제 104(2015)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었다. 그날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7호부,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2호부 선거장에 나가신 그이께서는 제107호부 제102호부 위원장으로 부터 선거표들을 받으

시고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량뫼루계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 운전수 허명공과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종태전기기관차원합기업소 2가공직장 직장장 신순태에게 투표하시고 대의원후보자들을 만나 담화를 나누시었다.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라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해온 그들의 공로를 평가해주시면서 앞으로 인민의 대표답게 사회주의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라고 고무격려 해주시었다.

선거에 대한 생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 땅에는 크나큰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고있다. 인민이라는 신성한 부름과 함께 불리워지는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질 각계층 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가 곳곳에서 끓어넘치고있다. 이 땅에 펼쳐지는 궁지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느라온 근로인민대중이 지닌 존엄과 권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설레임을 금할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화국인민들 너도나도 떨쳐나 애국의 한포를 바쳐 고마운 국가와 제도를 더욱 반석같이 다질것이니 정녕 걱정없이 맞을수 있는 날이다. 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진행된다. 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선거날에 온 나라 인민이 기쁨속에, 노래축속에 맞이하는 환희로운 선거풍경은 찾아보기 힘

들다. 공화국에서 선거날에 기쁨과 환희의 노래축만이 벌어지곤 하는것은 주권이 진정한 인민을 위한 주인이기때문이다. 잃을수 없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온 나라를 감격과 환희로 휩쓸었던 1946년의 역사적인 첫 주인선거를. 이 땅의 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쳤다. 인민정권이 세워진 때로부터 공화국인민들은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려왔고 인민정권을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왔다. 선거때마다 선거분구들에 나붙는 대의원후보자들의 사진을 보며 너도나도 기쁨을 금치 못하는것은 그들이 바로 자기들과 고티락을 같이 하는 성실한 일군들이

고 근로자들이며 이웃들이기때문이다. 어찌 노래와 춤이 절로 나지 않으랴. 첫 민주선거에서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인민들은 실생활체제를 통하여 인민정권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적존엄과 권리, 참다운 행복을 꽃피워주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심장

침략적 본색은 가리워질수 없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당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못이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종료》를 운운하면서 《동맹》이라는 이름을 단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약속한 조미공동성명과 북한선언들에 대한 반복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이른바 《키 리졸브》, 《독수리》를 가상의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모의실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한다. 이번 훈련에 남조선군부당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직속 합동부대를,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감정 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의 제한된 성원들을 참가시켰다. 보다싶이 훈련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다름없는 침략전쟁연습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부당국이 《방어적성공》의 연합회색연습이다, 종래의 《키 리졸브》연습에 비해 참가병력, 기간 등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하면서 《(한) 반도긴장평정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데 그

성하기 위한 외교적노력을 뒤받침하기 위한것》이라고 광고해대고있는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는것이 아닐수 없다. 가짜기 백만 분할해도 백로가 될수 없듯이 간판이나 바꾸어달고 규모와 기간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 침략적, 대결적본색이 가리워질수는 없는것이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불장난소동을 공공연히 벌리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을 실현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군사적압박책동으로 그 누구를 위협하고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차례질것이란 공화국의 단호한 대응과 그에 따른 쓰디쓴 참깨배에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돌아날것은 잘 알려져있다.

통일애국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중시하시어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온갖 구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참다운 여성인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일어났으며 이것을 계기로 하여 3.8국제부녀절이 생겨났다.

수령님께서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하시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단과 해외동포 여성들을 만나시었다.

아, 조국에 그이 돌아오신 오늘에도
인민의 눈가늘 감격의 눈물
마음속에 품고 계신 인민들
상봉의 시각이 너무도 기쁘시어
원수님은 웃으시며 손을 저어주시고
기다려 기다리던 아버지을 맞이해
인민은 쌓아온 그리움 한껏 터쳐노라

일을 위해 정력적인 기자회견을 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와 헤어질 때에는 다리가 불편한 너기자의 손을 몸소 잡고시고 승용차에 편히 오르도록 보살피주기도 하시었다.

그러나 오늘도 세계의 여러곳에서는 여성정치, 여성차별, 여성폭력과 여성학대라는 사회악이 근절되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

그이 대장정에 오르신 그날부터
밤을 잊고 산 인민
원수님 기뻐하시게
보답의 날과 날로 이어온 인민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서는 김련자가수 세계적인 명가수, 인기가수로 되게 해주시었다. 일본언론들도 그가 인기가수로 된것은 그 어떤 인기곡이나 음악적명성보다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견을 받은 가수였다는데 있었다고 하였으니 정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은 우리 이남여성들도 끝없이 사랑하고 높이 내세워주신 자로운 은인이시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핌속에 대해 후날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강하면서 소말한분이시었고 지난 1992년과 1993년 두차례에 걸쳐 접견해주시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회고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부부정신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문 첫날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심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자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그이를 모시고 그이를 받들어
세월이 다하도록
충정의 천만리를 걸고걸으리라
하늘땅 끝이라도 따르고 따르리라
불같은 이 진정한 인민은 경건히 드리노라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북한, 해외 여성들의 역할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은 우리 대에 기어이 실현하여야 할 민족적의과업이라고, 여성들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의 한 축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부부정신을 지니고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련자가수 동포애의 정으로 사랑하고 높이 내세워주신 자로운 은인이시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재미 교포녀류기자에게도 극진한 동포애의 정과 사랑을 보여주시었다. 주제 89(2000)년 6월 30일 미국에서 살고있는 녀류기자인 문명자를 접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처음 그와 만났던 때의 일을 상세히 추억해주시며 무려 여섯 시간이나 그에게 뜨거운 동포애를 부어주시고 민족의 화해와 통

은 겨레가 흠모하고 따르는 절세위인을 모시고 통일애국력량을 날로 더욱 양성강화되고 민족이 바라는 평화변영과 통일의 그 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침략적 본색은 가리워질수 없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당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못이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종료》를 운운하면서 《동맹》이라는 이름을 단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약속한 조미공동성명과 북한선언들에 대한 반복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이른바 《키 리졸브》, 《독수리》를 가상의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모의실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한다. 이번 훈련에 남조선군부당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직속 합동부대를,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감정 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의 제한된 성원들을 참가시켰다. 보다싶이 훈련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다름없는 침략전쟁연습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부당국이 《방어적성공》의 연합회색연습이다, 종래의 《키 리졸브》연습에 비해 참가병력, 기간 등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하면서 《(한) 반도긴장평정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데 그

성하기 위한 외교적노력을 뒤받침하기 위한것》이라고 광고해대고있는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는것이 아닐수 없다. 가짜기 백만 분할해도 백로가 될수 없듯이 간판이나 바꾸어달고 규모와 기간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 침략적, 대결적본색이 가리워질수는 없는것이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불장난소동을 공공연히 벌리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을 실현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군사적압박책동으로 그 누구를 위협하고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차례질것이란 공화국의 단호한 대응과 그에 따른 쓰디쓴 참깨배에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돌아날것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북한, 해외 여성들의 역할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은 우리 대에 기어이 실현하여야 할 민족적의과업이라고, 여성들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의 한 축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은 겨레가 흠모하고 따르는 절세위인을 모시고 통일애국력량을 날로 더욱 양성강화되고 민족이 바라는 평화변영과 통일의 그 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이목을 끈 소나무주제 미술작품전시회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지의 미술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150여점의 소나무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소나무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들은 국보적인 작품으로 등록되었을 정도로

한 작품은 볼수록 깊은 사색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였다. 공훈예술가 황영준이 창작한 조선화 《락락장송》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물쭈물한 소나무줄기를 화폭의 중심에 형성한 조선화 《락락장송》을 보노라면 바위위에 역세게 뿌리박고 세월의 풍상고초를 꿰뚫어 이겨내며 서있는 소나무의 역센 기상이 눈앞에 어려오는 듯싶어 사람들은 그앞에서 자리를 뜰 줄 몰랐다.

그중에서도 지난 시기 소나무를 주제로 하는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소나무화가로 널리 알려진 민수대창작사 조선화작가단 인민예술가 리경남이 그린 조선화 《소나무》는 독특한 구도와 힘있고 물동적이면서도 로속한 기법으로 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물동기법의 특징을 살려 소나무의 형태학적특징과 색감, 질감, 림체감 등을 집약적으로 표현



조선화 《모란봉 올미대의 아침》

전통적인 조선화기법으로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림체감이 나게 창작한 조선화 《력사국의 자랑을 전하며》, 《푸른 하늘을 떠미고》와 수예 《소나무와 참매》를 비롯한 작품들도 소나무에 비친 우리 민족의 기상, 공화국의 강인성을 잘 보여주었다.

각지의 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소나무그림들도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 작품들가운데는 함흥고려병원 노동자가 창작한 유화 《동해의 역센 소나무》, 평성시 덕성소학교 학생이 소나무술 우거진 고향마을을 형성한 크레용화 《고향마을》, 모란봉구역 김나을1유치원 어린이가 그린 떠민 소나무우듬지에 앉은 떠민 소나무우듬지에서 좋아 웃고떠드는 아이들을 생동하게 형성한 크레용화 《우리 나라 제일이야》 등도 있었다.

조선의 국수—소나무! 부르던 부를수록 애국으로 심장을 뒤흔치고 민족의 님과 기상이 비껴있는 소중한 부름이다. 참관자들로 련일 흥성인 미술작품전시회는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고 민족적정신과 자부심을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제 8 차 금코끼리상 국제교예축전에서

조선의 체력교예에 축전최고상 수여

제8차 금코끼리상 국제교예축전이 지난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에스파냐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조선, 로씨야, 중국, 몽골, 폴란드 등 13개 나라의 유명한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날과람의 기상》, 《상모놀이》를 비롯한 체력교예종목들을 가지고 출연한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은 세련되고 열정적인 형상과 높은 기량으로 날로 발전하는 주제

교예예술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2월 19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체력교예 《날과람의 기상》에 축전최고상인 금코끼리상이 수여되었다. 람홍색공화국기를 들고 무한한 긍지와 환희에 넘쳐있는 조선의 교예배우들을 향해 관중들은 《조선 장하다!》고 웨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특한 기교동작들과 화려한 물동으로 일관된 조선배우들의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조선의 황홀한 체력교예종목들이 있어 축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조선의 교예가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른것은 국가의 혜택속에서 배우들이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기때문이다. 앞으로 조선과의 문화적

협조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겠다. 로씨야 니콜린모스크바교예단 부총지배인, 배우교예단 총지배인을 비롯한 교예전문가들은 조선인민의 강인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훌륭한 공연이다. 민족적정서가 차연치고 구성이 짜여있어 예술적면에서 완벽하다. 조선이 교예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철마의 꿈 (4)

글 조정협, 그림 리성일

수연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달려나갔다. 밀랍으로 빛은것같은 작고 통통한 손으로 재빨리 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기운과 함께 승냥이의 울부짖음 같은 눈보라소리가 쏟아졌다.

《이 집이 유정수씨택이 웬나냐?》 방 안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두려운 외투를 입고 검은 목도리를 걸머진 한 녀인의 모습을 비추었다. 어린 수연은 추위에 피탈게 얼어버린 녀인의 얼굴을 공포에 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며 방에서 나왔다. 녀인을 본 아버지의 얼굴은 금시 백지장처럼 되어 버렸다. 잠시후 아버지는 어린 딸을 황황히 방안으로 돌려보내고는 문을 뚫어 소리 나도록 후려쳤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긴 수연은 문틈에 귀를 대고 두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몇타리 말이 오가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어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일뿐이었다.

《형님을 아예 잊어버린건 아니예요?》

녀인의 담담한 그 목소리에 사위는 물부린듯 고요해졌다.

《나에게 큰아버지가 있던 말인가?》

수연은 호기심을 안고 다 음 말을 기다리었다. 녀인이 불쾌한 어조로 말을 이어갈 때 아버지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잠시후 아버지는 작심한듯 단호히 소리쳤다. 《난 그런 사람을 모르오. 나가시오!》

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작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열마수 문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스산한 겨울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아버지가 방안에 들어왔다. 금시 흥분된 기색이었다. 수연은 금방 왔던 녀자가 누구냐고, 그가 누구 찾는가고 물어보았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태연해보이며 《뉘, 그냥 술취한 녀자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없이 수연의 앞을 지나쳐갔다. 탁자 위의 바이올린이 아버지의 옷자락에 걸려 땅바닥에 떨어졌다. 허리 잘록하고 반질거리는 물결이 태절하며 울리는 피이한 신음소리에 수연은 금시 가슴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것 같았다.

에쁘장한 그 모양이 우리 수연이 같다면 두볼을 대고 쓰다듬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수연은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참후

아버지는 딸에게 왜 가정의 쾌락을 숨기려 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불행한 력사가 비껴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에게 형은 아버지나 닮았었다. 학비를 못지 못해 중학교를 중퇴한 형은 어느 기관구에 들어가 잔뼈가 굵기 전부터 험한 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그는 해방을 몇해 앞두고 고향에 돌아와 시골학교 선생이 되었다. 기관에서 로동을 하던 시절 선배로동자들의 영향속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근로하는 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세세상을 동경해온 형은 학생들에게 민중의 자유

를 해방을 위해 목숨도 바쳐 싸워야 한다고 력설하곤 하였다.

《저승길에 오른 몸이 무얼 숨기겠니. 넌 그때 그 녀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그는 어린시절 나와 한마을에 살던 녀자였다. 그리고 한켠상에 앉아 글을 배웠지.》

《그랬군요. 그런데 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추운 겨울밤에.》

수연은 정이 많은분이라고만 여겼던 아버지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넌 잊을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을 너는 다 리해 못할거다. 그날 밤 그 수리에대 글을 읽던 옛 선생님을 나에게 상기시키더구나. 그 선생님은 바로 너의 큰아버지였다.》

돌아오지 않았고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잔혹한 《빨갱이사냥》이 시작되었던것이다.

인민군대를 도와주었거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연루된 가족들이 입는 피해는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하루 밤 자고나면 알마를 사람들이 도둑을 당하고 또 하루밤 지내고나면 이웃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 어딘가로 끌려가곤 하였다.

형이 인민군대를 따라갔으니 자기도 무사치 못하리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지체없이 멀리로 들구뛰었다. 단속에 걸리면 방랑하는 고아라고 우기었다.

그는 형의 존재자체에 대해서 잊었던것이다.



와 해방을 위해 목숨도 바쳐 싸워야 한다고 력설하곤 하였다.

이후 해방 그리고 전쟁이 이 나라 력사에 거대한 자취를 새기며 다가왔다. 전쟁시기 의용군에 탄원하여 인민군대를 따라간 형은 다시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5)

9. 2중아시아레스링선수권보유자 박영미

공훈체육인인 박영미는 평양체육단의 레스링선수이다.

그는 지난해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레스링 53kg급경기와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스링 53kg급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고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훈민정음은 15세기에 창제된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글자이다.

이미 세나라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사용하여오던 우리 겨레는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훈민정음은 우리 겨레가 오랜 글자생활의 경험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가장 발전된 글자이다. 《훈민정음》이란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를 적는 훌륭한 글자》라는 뜻을 담고있다.

훈민정음은 가장 발전된 글자로서 여러가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훈민정음은 첫째로, 글자에서 가장 발전된 유형인 날소리글자이다. 날소리글자는 글자발전의 건지로 보아 더 제일 발전된 유형이며 더구나 소리마디가 풍부하고 자음과 모음이 다양하게

름난 미술가가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화관우에 공화국기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체육인이 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그는 레스링선수가 되었다.

그는 평양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지 1년만에 태양절경축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여자레스링 48kg급(2급)경기에서 우승하고 첫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후 2013년과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스링경기에서 출전하여 맞대응 모든 선수를 물리치고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었으며 이로 하여 2중아시아레스링선수권보유자로 되었다.

조화된 우리 말을 적는데는 그것이 제일 적합하다. 훈민정음은 개별적인 말소리들을 따르므로 나타내는 날소리글자이면서 첫 소리와 끝소리를 나타내는 자음글자와 가운데소리를 나타내는 모음글자를 구분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이 글자는 우리 말의 풍부한 말소리들을 다 잘 나타낼수 있는것은 물론

조선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세계 어느 나라 말소리들보다 다 나타낼수 있게 되어 있다.

훈민정음은 둘째로, 음운체계의 특성과 글자체를 기본적으로 대응시키면서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가지 말소리들을 다 적을수 있게 만든 글자이다. 이 글자는 우리 말의 음운과 음운체계에 대한 깊은 고려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때문에 독자적인 음

생이었던것이다. 기초내용은 기가 막혔다. 사람들앞에서 파소통치체를 규탄하고 통일을 주장한것 등을 엄중함 《리적활동》으로 몰아붙여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할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날 그 녀인이 아버지앞에 나타났던것이다.

겨울밤의 문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인간에게 땅각의 자유는 없는것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이미 다 지나가버린것으로 여겼던 과거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기에 놀라고 화가 통한 아버지는 그를 쫓아버리고말았다. 그것은 어린 자신의 눈동자에 지울수 없는 영상을 남기주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니? 아무래도 피졸은 잇을 수 없어. 난 지금 형이 보고싶다. 형앞에 용서를 빌고싶어. 그리고 그 녀자에게도. 그런데 저승에 가서도 난 그들을 볼것 같지 못하구나.》 아버지의 눈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

윤명의 회동인듯 오늘 윤수연은 바로 그 녀인과 함께 《명양행》 기차를 타고 있었다.

윤수연은 눈보라 사나던 겨울밤의 이야기며 아버지가 그 일로 하여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분은 림종시에 선생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싶다고 했답니다.》 무릎우에 놓인 녀인의 두 손이 바로 떨리고있었다.

그는 오늘도 더 높은 국훈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경쟁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있다.

10. 재능있는 중랑급력기강자 김은주

공훈체육인인 기관차체육단 여자력기선수 김은주는 2018년 국제력기령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여자력기 87kg급 추켜올리기종목에서 1등을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

평안남도 속천군이 고향인 그녀는 소학교시절에 학습도 잘하고 음악에도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그후 청천강체육단에서 력기초기기술을 습득한 그녀는 기관차체육단 선수로 생활하면서 정해진 훈련과제외에 자체로 훈련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훈련하면서 육체기술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2007년 공화국선수권대회 여자력기 69kg급경기를 비롯



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그녀는 중랑급에서 재능있는 선수로 인정받고있다.

지난해에 거둔 우수한 경기성과로 하여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지닌 그녀는 세계력기계를 뒤흔들 배심을 안고 훈련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자들의 획이 간단하며 체계적으로 서로 련관되어있다. 또한 글자의 모양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균형이 잡혀있으며 세련되어있다. 그리고 말소리들의 특성에 따라 글자들을 리치적으로 쉽게 리해할수 있게 되어있다.

훈민정음은 창제해 우리 겨레의 언어생활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다. 고유한 민족문자의 창제에 의하여 우리 겨레는 서사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민족어의 규범을 세우며 그에 의한 언어생활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점에서도 력사적의의가 있었다.

훈민정음과 같은 우수한 민족문자를 만들어낼수 있었던것은 민족문화의 오랜 전통과 풍부한 유산에 토대해서만 가능한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잘 알수 있다.

김명일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비물질문화유산들중에는 두부였기도 있다.

풍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면 옛날부터 다양하게 발전하여왔다. 두부는 잘 불린 콩을 갈아서 자루에 넣어 짜낸 콩물을 걸러낸것에서 나온것이다. 또 두부를 잘 불린 콩을 갈아서 자루에 넣어 짜낸 콩물을 걸러낸것에서 나온것이다. 또 두부를 잘 불린 콩을 갈아서 자루에 넣어 짜낸 콩물을 걸러낸것에서 나온것이다.

서술을 둔 다음 콩단백질이 엉겨 하얗하얗하게 된것은 순두부이고 이것을 물에 붓고 눌러서 만들면 짜내고 모나게 자른것은 모두부이다. 두부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

새끼로 묶어서 들고다녀도 몽그리지 않는 단순두부, 삶아서 먹던 순두부, 언두부, 기름에 튀긴 유두부, 미꾸라지를 두부속에 넣은 약두부, 베천으로 굳힌 배두부, 명주로 굳힌 비단두부 등 그 가지수가 수십가지 되었다.

3월의 절기

3월의 절기로서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24절기의 하나로서 양력 3월 5일이나 6일에 해당된다.

경칩이라는 말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비가 내리는 봄이 되면서 우뢰소리에 놀라 땅속에서 깨어나는 때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예로부터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얼음이 풀린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체로 정월말

옛 기록에 전해오는 두부 음식만 하여도 순두부, 두부장, 추어두부탕, 두부전골, 두부찜, 굴두부구이, 등과두부찜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본다면 굴두부구이는 뜨거운 소금물에서 익힌 굴과 삶은 토란, 두부를 쪄먹기에 꿰어서 기름장을 발라 구운것이고 등과두부찜은 등과를 얹고 썰어 삶은 물에 살짝 데치고 꿰고, 참나물버섯, 들보섯과 두부를 한데 섞어 빻아서 등과우에 넣고 푹 삶아서 찜이였다.

두부는 오늘 김치, 고추장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두부로 만든 료리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두부앗기풍습은 오늘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있으며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부앗기는 지난해에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봄 되면 봄기운이 짙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춘분은 태양이 춘분점을 지나는데 때로 양력 3월 20~22일에 해당된다. 춘분이라는 말은 봄철이 중간에 이른 절기라는 뜻이다. 이날 낮과 밤의 길이는 지구의 어디에서나 거의 같아진다. 춘분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면서 밤은 점차 짧아진다.

본사기자